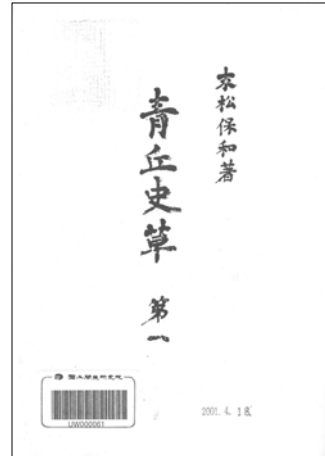


71 靑丘史草 청구사초

1965년, 1966년 / 末松保和(스에마쓰) / 910면 / 13.10-11 말55청 1981

‘청구사초’란 ‘조선의 역사’란 뜻이다. 전 경성 제국대학에 있던 末松保和(스에마쓰 야스카스) 교수의 저술인데 제1권은 1965년에, 제2권은 1966년 일본에서 출판되었다. 이 책을 ‘진서’로 고른 것은 스에마쓰 교수가 『朝鮮王朝實錄(李朝實錄)』 연구의 제1인자



란 점과 제2권에 前間恭作(마에마 교사쿠)에 대한 평전이 17면이나 실려 있기 때문이다.

前間(마에마)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2년 후인 1894년에 일본영사관 서기를 임명받고 인천근무를 명 받는다. 서울 근무를 거쳐 1910년에 호주 시드니 근무를 마치고, 이듬해 다시 한양근무를 명 받아 돌아온 후 조선총독부 통역관으로 근무했다. 1911년에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, 그는 한말(韓末)에서부터 전후 18년 간의 조선생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학자로서의 노력도 눈부셨다.

한말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우리나라 고전 기록 빼돌리기 선봉이 바로 이 마에마였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. 마에마는 한말에 423종류 1,700여 권의 책을 수집하여 당시 동경제국대학에 기증했으나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이 불타버려 회진되고 말았다. 좀 구차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당시 마에마가 수집한 책 가운데 고산자(古山子) 김정호에 관한 기록이 혹시 들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.

스에마쓰 교수가 『朝鮮王朝實錄』 연구의 제1인자란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. 천

관우(千寬宇) 선생에 따르면 『朝鮮王朝實錄』에 관한 한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막론하고 스에마쓰 교수를 따라잡을 권위자가 없다는 것이다. 그는 『朝鮮王朝實錄』을 세계 최대 실록이라고 말한 다음 실록 기록의 사관(史官), 즉 춘추사관제도의 기발성을 찬미하고 있다. 사관의 엄정 중립과 권력(왕)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우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.